

지역 매아리

한도연, 정읍경찰서장 취임

한도연 총경이 27일 제99대 정읍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27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각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청인사 접견에 이어 본 행사에 들어가 경찰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한도연 정읍경찰서장은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을 지역실정에 맞는 공감치안활동,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경찰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성재, 고창경찰서장 취임

제73대 김성재 고창경찰서장 취임식이 27일 오전 11시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찰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경 73주년을 맞는 올해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지지(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시기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성재 총경은 전북 고창출신으로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 2000년 경찰청 정보국 ▲ 2006년 강원청 원주서 생활안전과장, 서울청 정보2과 1계장 ▲ 2017년 서울청 치안지도관 강원청 경찰올림픽기획단장,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을 거쳐 고창경찰서장에 취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평면 오정마을 심동범씨 경로당 어르신 위해 쌀 기탁

이평면 오정마을 심동범씨가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쌀 100포(20kg)를 면에 기탁했다.

심씨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면은 "많은 분들의 정성과 기부로 지역 사회에 따뜻함이 넘친다"며 "경로당에 쌀을 잘 전달해 어르신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감시강화 · 온배수피해 조사

고창군, 한빛원전 관련 현안문제 체계적 대응 추진

고창군은 민선 6기 이후 마련한 한빛원전 관련 현안 문제의 대응책에 따라 안전감시강화, 온배수피해 추가 조사,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 등의 해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700m가 안되는 고리포민을 사이에 두고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에 위치한 발전 용량 5,900Mw의 한빛원전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8.7%를 차지하며 영광 쪽 취수장까지 7C 이상 상승된 온배수를 고창쪽 바다로 연간 74억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창군은 막대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에 주력하면서 불합리한 세제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소재 지역의 강력한 반대,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개선 불가입장으로 벽에 부딪히자, 박우정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지원이 고창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동안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산업자원통신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끈질기게 노력해 산자부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또한 미흡한 온배수 피해보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피해추정 미 보상액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빛원전에 요구하며 예산을 확보, 현재 조사를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자원 시설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에만 부과하던 지역자원 시설세 1원/kWh를 1.5원으로 인상해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전북, 고창, 부안)에도 납세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에 전라북도에 건의했다.

이후 전북도와 함께 김병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재 지역, 정부 등의 입장을 검토해 1.2/kWh안으로 확정해 올 3월에 상정했고 11월에 국회 행안위 1차 심의가 진행 됐으며 산자부는 부정적이나, 행안부와 의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2월 2차 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피해(온배수 관련) 보상을 영광군 420억

원, 고창군 1283억원을 받아 그 피해가 고창군이 3배 이상 많고, 2003년~2014년 연평균 지가 상승률(한국감정원통계)이 전국 2.39% 전북 군 지역 평균 0.95%, 고창 0.44%, 인근 부안 1.11% 전남 군 지역 0.79% 영광 0.29% 함평 0.61%로 나타난 점을 비교해 볼 때 원전으로 인한 재산의 불이익인 외부불경제 효과가 고창군이 영광군에 못지않음을 주장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특정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방안'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원전으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인 외부효과(외부불경제 효과)는 4.2원/kWh인 점을 감안, 고창군은 현재 외부비용 반영수준인 1.23원/kWh(지역 자원 시설세 1원/kWh, 주변지원금 0.23원/kWh)보다 단계적인 추가 반영과 이를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자체 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이러한 범용의 개정은 원전 소재지역과 미 소재 주변지역(광역·기초단체), 정부, 정치권 등의 입장이 복잡하므로 작용하는 고도의 정책적 균형이 필요한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도서관 버스 차고, 예술공간으로 변모

정읍시립미술관, 고교생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수고했어, 올해도' 진행

정읍시립미술관이 예술창작 공간으로 변신했다.

시립미술관은 최근 뒷마당 옛 이동형 도서관 버스 차고로 사용했던 창고를 예술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변신 작업에는 정읍지역 작가들과 학예연구실 직원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실로 66㎡의 버스차고가 무한한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작가들은 옛 버스 차고 기억들을 담은 '예술버스'를 벽화로 그려 창의성과 예술성을 더했고 학예연구실 직원들은 팔포를 팔아 내부를 깔끔하게 색칠했다.

또 책상과 의자(8개 세트)와 선반 등 편의시설도 비치해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새롭게 변신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수고했어, 올해도'가 그것이다. 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쉽게 체험하기 힘든 판화작업 중 실크스크린 작업을 체험하고, 에코백을 직접 프린팅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

된 버스 차고가 신선하고, 이곳에서 예술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술관 뮤지엄 교육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새로운 공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가졌다"며 "참여자들의 반응이 특별히 좋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백산면사무소 박경식 주무관 유공공무원 도지사 표창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맡은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행복한 군민 자립스런 부안 건설에 앞장선 부안군 백산면사무소 박경식(사진) 주무관이 유공공무원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는 다.



박경식 주무관은 사회복지담당자로써 장애인 복지를 물론 노인 바우처, 사례관리, 아동 업무와 장애인연금과 사례관리, 기초수급, 차상위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맞춤형 복지 증진에 앞장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백산면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28건, 장애인등록 9건, 기초수급 3건, 차상위보장 3건을 신청 받았으며 2명의 아동복지 대상자를 발굴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왔다.

또 기초수급 대상자가 몸이 불편해 면사무소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 집을 방문, 직접 신청을 받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급 신청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어려운 대상자와 함께 은행 등을 같이 방문하며 업무를 수행,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며 칭찬이 자자하다.

박 주무관은 각 마을별로 어려운 대상자를 파악하여 노인생활관리사 선생님, 마을이장님, 팀장님, 팀원들과 마을 소의계회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33명을 서비스연계로 보강하였고, 2명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매 주마다 방문을 하고 난방유 제공 백미 제공 등 현 물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으로 매주 방문하여 말벗을 해드렸다.

이와 함께 박 주무관은 직원 뿐 아니라 면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사정을 내일과 같이 도와드리고 모든일에 솔선수범을 보여 근면한 직원으로 정평이 나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우수전공공무원을 받기도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종합 평가회 가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6차 산업 수익모델의 종합 평가회가 2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경영교육 수요식, 제품 상품화 응용 최종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사업 종합 평가회(유) 남부안농업농주회 회원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종합 평가회에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제과직업전문학교 김판식 교장이 외식 카페 운영전문가, 전문음식 이카데미 정미경 원장이 6차 산업 한식요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 전문경영교육 수요식이 열렸으며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과 직거래

할 수 있게 포장을 균일화 하는 제품 상품화 응용 최종보고회와 같이 진행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장인 외식 카페에 부안 농특산물과 오디빵을 활용한 한식부페 운영을 위한 레시피 개발과 현장 적용,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6차 산업을 통한 남부안권 및 부안내 포음식 시식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은 "이번 평가회 등으로 부안에도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들의 의식 개선 및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Gan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